

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

작성일: 2011. 4. 23.

작성자: 장정희

[천국성령운동 기도 시간에 주님께 선생님에 대해
진정
깨닫고 싶다고 간구하였습니다. 그러자 주님께서 성
경을
펴라 하셨고 스가랴 6장, 7장, 8장이 펴졌습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사랑하는 자여, 기록하라.
이는 역사적 사실이자 역사적 증거이니라.
나 주 예수가 선생에 대해 증거하노라.

선생은 스가랴 6장 12절처럼

『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
하시되
보라 싹이라 이름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
서
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』

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니라.
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나.
하나님의 마음이요, 하나님의 심정,
하나님의 정신, 하나님의 사랑,
곧 진리요 성령이니라.
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니
하나님이 곧 성전이지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니라.
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
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정신을
너희 마음 가운데에 세운다는 의미이다.
그리하여 선생은 하나님과 나 예수가
너희 마음과 정신에
여호와의 전 곧 삼위의 성전을 건축하려 보낸 자니
라.

또한 스가랴 8장 3절처럼

『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
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

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
만군의 여호와와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』

나 주 예수가 이 시대 예루살렘 성전인
선생 가운데 거하리니 이것은 바로 선생이
이 성약시대 나의 육임을 의미하노라.
나는 선생이라는 시대 성약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
나니
선생을 통해 시대 재림의 말씀이 선포되고
재림의 말씀이 있는 시대 성전 섭리사는
여호와와 성산이 되느니라.
고로 선생은 나 예수의 성전이요,
나의 영이 온전히 거하는
나의 육, 나의 몸 된 자이니라.

스가랴 8장 7절을 보아라.

『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
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
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』

이는 아버지와 나의 말이노라.
이 시대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이
무엇을 의미하겠느냐.
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아니겠느냐.
해는 하나님과 나 예수를 상징하며 진리를 상징하
니
진리가 선포되는,
즉 지금 시대 말씀이 전파되는 섭리사를 의미하니
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은
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섭리사를 의미한다.
이 진리의 말씀은 너희를 세상의 악에서 구원한다.
구원은 선생 통해 선포되는
삼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
선생은 진정 나 예수와 일체되어
이 땅을 구원하는 자임을 너희는 깨달아라.

그리하여 스가랴 8장 8절처럼

『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
니
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
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』

선생은 너희를 시대 성전 섭리사에 거하게 하여
하나님과 나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고,
하나님과 나 예수는 진리와 공의로
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어
너희의 신량이 되고
신부들을 휴거시키리라.
선생을 증거하는 나 예수이다.
안녕!